

기획특집, 동성애

동성애의 실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류상에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1번인지 2번인지 F인지 M인지 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할지는 지금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성별에 G(남성 동성애자)나 L(여성 동성애자)을 표시하는 란이 생기는 않을까? 1960년대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성의 혁명은 전세계를 휩쓸며 과거의 전통과 관습들을 뒤 흔들고 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을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세대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과 미디어를 통하여 학습시키려 하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때 열린 동성애적 경험을 시작으로 2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로 살았다. 나는 남자였지만 여성성이 많아 보였다. 다른 남자들보다 섬세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심미적인 것들과 외모를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나 역시 오랫동안 나의 여성적인 면모 때문에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오랜 씨름을 통해 내가 가진 여성성이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렀다. 신체는 남성으로, 정신은 여성으로 태어난 남자는 없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

1. 제3의 성에 대해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좋아졌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소위 여성스러운 남자들은 ‘남자라면 이래야지..’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한국에서도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가 등장하자 많은 여성스러운 남자들이 성 전환을 탈출구처럼 여기며 성 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되었다. 과거 여성스러움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던 남성과 트랜스젠더가 된 남성, 둘 중에 어느 삶이 더 행복했을까? 우리나라의 최초 트랜스젠더 김유복씨는 이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음을 고백한다.

남성과 여성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조정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신의 영역이다. 우리의 몸에 너무도 분명한 많은 기관과 역할이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에 따라 임의로 그 성질을 바꾸거나 부인하지 않듯이, 제3의 성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성별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성 정체성의 혼란의 원인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을 다 규명할 수는 없지만, 나의 경험을 돌아볼 때, 그리고 동성애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잘못된 놀이를 통한 성정체성의 혼란이다.

우리집은 1남 1녀로 나와 누나가 있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누나와 주로 지내다보니 남성적인 놀이보다는 인형놀이,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같이 여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자주 했고 좋아했다. 또 누나는 어릴 적부터 미용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동생인 나에게 화장을 시키거나 예쁜 여자 옷들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한 누나의 돌봄 아래서 나는 여성스러움을 자연스럽게 흡수했고, 손짓과 말하는 습관 등 여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 뿐 아니라 누나 밑에서 비슷한 영향을 받은 남성동성애자들이 있다. 내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보이는 것은, 남자들이 여장을 하거나 여성 흉내를 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러하다. 수많은 미디어에서 남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여장을 하고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지만,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아버지로 인한 혼란이다.

남성성은 아버지를 통해 학습된다.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남성성을 펼쳐가게 된다.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남자의 역할과 기능을 배운다. 어머니와는 또 다른 정서적인 안정감과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버지이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보다는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그러진 가정은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난다. 폭력적인 아버지, 대화가 없는 아버지, 부재중인 아버지, 사회적 실패나 재정적인 이유로 가장으로서 권위가 실추된 아버지 등 많은 문제를 가진 아버지를 볼 때에 자녀들은 건강한 남성상을 배울 수가 없다.

이러한 결핍되고 왜곡된 아버지상, 남성상이 성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한 학생은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남자가 싫어졌는데,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호감을 느꼈을 때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의 빈 공간을 동성애로 채우려 하게 되었다.

셋째는 놀림을 통한 혼란이다.

여성스러운 남성은 자라면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종종 놀림을 받게 된다. 나는 나의 그러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친구들로부터 기집애, 찌찌이, 마마보이 등의 놀림을 자주 받았다. 또 심하지는 않았지만 또래 집단으로부터도 그러한 놀림을 받았었다.

내가 상담했던 동성애자들 중에는 그러한 깊은 상처로부터 동성애의 문이 열린 이들이 있다. 한 아이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래 여자아이들로부터 오랜 기간 따돌림과 놀림을 받으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며 자신의 남성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반복적인 성적 놀림은 그 사람이 온전한 성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3. 남자다움에 대하여

‘남자는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남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도 오히려 잘못된 성 정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다. 나는 과거에 남자라면 근육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스스로 괴로워했다. 남자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남성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미디어와 주변 사람들이 강요하는 잘못된 남성성에 비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확대하고 있다.

남자라도 싸움을 잘 못해도 된다. 축구를 잘하지 못해도 된다. 키가 작고 근육이 없고 외소해도 된다. 감정이 섬세하고 목소리가 낮고 톤이 높거나 미용에 관심이 많다 해도 괜찮다. 남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는 남자인 것이다. 꽃도 새도 물고기도 그 모습이 다양하다. 남성스러운 여성일지라도, 여성스러운 남성일지라도, 그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졌을 뿐 태생 그대로 여성이며 남성인 것이다. 자라나며 왜곡되어버린 성 정체성의 혼란을 치유하면 본래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찾게 될 것이다.

4. 변화를 위한 노력

나는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였다.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도 남성도 아닌 여성적인 남성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다. 그렇지만 유년시절부터 나는 항상 괴로웠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남성들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멋진 남자가 되길 원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좋아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에 반기를 들고 나도 진정한 남성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내 모습 이대로 좋은 남자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남자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스스로를 비교하며 괴롭게 하던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나는 또한 나를 만들어온 수많은 시간을 거스르기로 했다. 견고하게 믿어왔던 이전의 성 정체성을 벗어나고 진정한 나를 찾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을 버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현재 나는 이전과 많이 다르다. 스스로 여성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다. 비록 연약한 아버지를 통해 어그러졌을지라도, 따돌림과 놀림 등으로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어떠한 이유로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문이 열렸을지라도, 본래의 남성성을 찾아가고 배우며 온전한 남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노력이다.

기준이 없는 것이 기준이 된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 사회는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시대가 지나도 변할 수 없는 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정체성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다. 바른 기준을 거스르기 위해 사회를 바꾸려 한다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준으로 돌아가자.



박진권 디렉터
탈동성애자이고, 현재
아이미니스트리대표이다.